

출로는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끌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바라고 있다.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우리 겨레의 헌신과 투쟁의 귀중한 열매인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것은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기본요구로 나선다.

특히 중요한것은 북남수뇌들에게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리행을 다그치는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이 선언들은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공

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들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지금까지 년대를 거치며 각급에서 이룩된 북남합의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있으며 그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원칙과 기초를 이루고있다.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지난 시기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사변들이 펼쳐졌다.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의 길이 열리고 오래동안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함께 통일로 가는 관계로 전환되였다. 분렬의 장벽에 파열기를 내며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북남삼천리에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진감했다.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나산 등 북과 남을 오가며

진행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서로 일싸안고 갈라져 살수 없는 한겨레임을 눈물겹게 절감했다. 여러 국제체육경기 대회들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화불로 타올라 우리 민족은 파죽도언어도 력사도 문화도 하나인 단일민족임을 내외에 표시하였다.

지나온 나날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대단결도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똑똑히 새겨안았다.

그런데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 《정

권》의 출현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북남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전면유린하며 동족대결에 혈안이 된 보수당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남조선에 현 《정권》이 들어선지도 1년 수개월이 지났지만 북남관계는 여전히 침체와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것을 바로잡자면 하루빨리 남조선당국이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대결정책으로써는 결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정통뿐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와 지어 집권층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를 외면하는것은 곧 북남관계개선을 거부하는것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의 유일한 출로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이다.

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을 통해 뚜렷이 확증되였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부정당하고 대결에 악용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공화국의 대법하고 성의있는 제안들에 호응하여 6.15, 10.4선언을 비롯한 북남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정 학 준

냉전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와 대결을 끝장내는것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더이상 방임할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사소한 언행이나 자그마한 마찰도 위험한 충돌을 초래할수 있는 비정상적인 협박한정세가 지속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민족성원모두가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속에 살고있다.

갈라져 살아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는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수십년세월을 불행과 고통속에 사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적대시하고 대결하며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고있는 이 비극적상태를 온 민족은 더이상 방치해둘수 없는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으며 누구도 자기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며 《세계통일》을 시도한다면

동족사이 대결과 전쟁을 피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던 냉전시대의 관념에서 결단코 벗어난 때라야 온 민족이 바라는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룰수 있는것이다.

지구상에는 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진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좋은례들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서로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그 어떤 리유로도 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사상과 제도에 민

족이 있다. 대결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위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립장에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지난 기간 공화국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지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할것을 주장해왔으며 그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남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정세가 천여한 속에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이고 성의있는 제안들을 내놓았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우리 민족모두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의지는 변함없이 그것은 날로 더

욱 강렬해지고있다. 올해 정초부터 공화국이 취한 모든 조치들이 이것을 똑바로 말해주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이 내민 화해의 손을 사십없이 잡아야 한다. 그 길만이 겨레의 숙원인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인것이다.

당면하게는 남조선당국이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사물인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조선반도는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해마다 여러차례 벌려놓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속에 놓여있으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매번 더욱욱 악화되고있다.

하나의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보호자가 될수 없으며 날이 갈수록 북과 남의 분렬을 퍼하는 외세의 음흉한 침략적본성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다.

북남사이의 모든 문제는 철저히 민족내부문제인것만큼 북과 남이 서로 손잡고 풀어나갈 때만이 순조롭게 풀릴수 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냉전시대의 대결관념에서 단호히 벗어나 민족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점에서 공화국정부성명에 하루빨리 호응해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설것을 요구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희생자가족들이 바라는것은 돈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전한 사비를 만드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희생자가족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퍼뜨리며 자식을 팔아 일할 천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만 들었다고 단죄하였다.

자식의 체취를 느끼고싶어 아이들의 옷을 입고 양말과

신발을 신고다니다고 하면서 누가 내 자식을 죽였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 범죄자들을 밝히지 않는가고 하면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사죄인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미국의 맥빠진 《도발》타령

최근 미국이 공화국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놓고 판에 박힌 《도발》타령에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미국무부는 《북의 미사일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니 뭐니 하다 못해 나중에는 포사격훈련까지 걸고들며 《도발로는 안전보장을 못 받는다.》는 꾀변을 늘어놓았다.

미국이 국제사회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늘생 해대는 《도발》타령이지만 적반하장 의 극치인 그 뻔뻔스러움에 하도 어이가 없어 짚고넘어가지 않을수 없다.

자기 나라 령도에서 대포를 쏘든, 로켓를 발사하든 그것은 주권국가로서 공화국의 자위권에 속하는 일이다. 여기에 미국이 참견할 하등의 리유란 없다. 사실상 미국의 간섭 그자체는 상대방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위협이다. 미국이 그레언제 한번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오격미사일시험발사를 하고 남의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려놓았는가. 자기 땅에서 하고있는 정당방위적인 군사훈련이 《도발》이고 《위협》으로 된다면 제 땅도 아닌 조선반도주변에 술한 핵타격수단들과 첨단군사장비들을 끌고와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수시로 벌려놓았는 미국의 행실은 과연 무엇이라 해야 하겠는가. 알려질바와 같이 지난 11일

미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라격침단과 이지스주축함 《키드》호편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면 미국은 16일부터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남조선해안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런합훈련을 벌려놓고 있으며 련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는 제주도 남해협상에서 일본의 해상무력까지 참가시켜 《런합수색주축훈련》이라하는것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그리고는 이번 런합해상훈련에 대해 《년례적》이니, 《미리 통보하였다.》느니 하며 첩원피해가 돌아갔고있다. 하다면 공화국이 미국에 통보하고 이제부터 년례적으로 미국의 앞바다에서 첨단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군사훈련을 벌린다면 미국은 눈감고 가만히 있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조약이나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위협공갈하다 못해 서슴없이 침략하는것이 변할수 없는 미국의 본성이다. 제가 저지르는 엄청난 군사적 도발과 침략행위는 정당한것이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군사행동은 언제나 《도발》과 《위협》으로 물어내는 파렴치한 남강도적본리는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는다. 수십년 간에 걸친 미국의 악랄한 핵

위협과 압박, 제재속에 살아오면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총대와 강위력한 핵억제력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에 의해 정당방위수단으로 마련된 공화국의 무전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과 군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미국이 끝끝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붙을 떠르려한다면 한치의 오차도 모르는 공화국의 위력한 첨단로켓들이 핵항공모함이라는 덩치 큰 목표물을 단순히 보기좋게 박살낼것이 아니라 상상도 해보지 못한 강위력한 첨단무기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것이다.

잘못된줄 알았으면 제때에 생각을 바꾸는것도 지혜라 했다. 수십년간에 걸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미국이 얻은 것이란 지름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이다. 미국은 지금 대조선적대시정책인 《전략적내전정책》에 고갈까지 매달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무모한 야망에 시들어가고있다. 지나친 욕심때에 손해라는 말도 있는데 맥빠진 《도발》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조용히 돌아가야 《대국》의 체면에도 어울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미국에 권고하고 싶다.

본사기자 서 희

조선반도의 정세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지를 표명한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과 공화국정부성명은 내외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특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공화국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함으로써 그것이 북남관계개선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긴장완화에 도둑이 되는 일을 할 대신 진실을 더욱 격화시켜 우리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것처럼 16일부터 남조선의 제주도주 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대규모의 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있다.

최근 미국이 통산에 있는 남조선미국 《런합군사령부》를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계속 주둔시킬 립장을 남조선당국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오는 10월에 열리게 되는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와 함께 이 문제를 최종확정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음흉한 속심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미국 《런합군사령부》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강화하고 전조선을 타고았기 위한 북침전쟁책동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계획들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여기에는 《바다우에 떠다니는 기지》라고 불리우는 수습대의 전투특격기들을 적재한 핵추진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참가하여 해상기동훈련, 항공모함호위훈련, 비행기요격훈련 등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

습들이 연습기간에 벌어지게 된다. 그것이 끝나면 련이어 미국, 일본, 남조선의 런합해상훈련도 벌어져 전세계를 더한층 격화시키게 된다. 리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북남관계를 전쟁정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책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할데 대한 공화

국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이 나온 때에 심사숙고하여 위험천만한 합동전쟁연습을 자제하고 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례연습》이니 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전쟁연습

소동에 더욱 극성스레 매달리고있는것은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고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파ंग의 발로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도 각종 북침합동전쟁연습소동 등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여기에는 또한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대아시아전략파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늘날 미국의 세계제패 야망 실현에서 아시아지역은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미국 《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계속 주둔할 경우 런합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군의 주

요집단과 침략무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될것이고 나아가서 《유사시》에 대비한 남조선공군의 군사적협조가 더욱 강화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제로 이번에는 미국은 남조선미국 《런합군사령부》가 서울에 있는것이 남조선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등과의 《업무협조 및 유사시 대응》에 유리하다는 립장을 거

들 밝히면서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불기들을 물어오는 범죄적인 남조선미국 《런합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침략군, 강점자인 미군은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

미국은 남조선미국 《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계속 주둔할 경우 런합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군의 주

요집단과 침략무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될것이고 나아가서 《유사시》에 대비한 남조선공군의 군사적협조가 더욱 강화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실제로 이번에는 미국은 남조선미국 《런합군사령부》가 서울에 있는것이 남조선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등과의 《업무협조 및 유사시 대응》에 유리하다는 립장을 거

들 밝히면서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불기들을 물어오는 범죄적인 남조선미국 《런합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침략군, 강점자인 미군은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

본사기자 김 철 호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6일 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등으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데 대해 군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하고있지만 공격적인 핵항공모함의 진입 그자체가 적대적군사행동으로 불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일본정부부가 《집단적자위권》행사의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활동이라는 점 등을 놓고볼 때 이번 군사연습은 무력시위이자 일본의 재침책동을 위한것이라는 군사행동위에 다름이 아니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호전세력이 합동군사연습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호전적인 핵전쟁연습책동의 중지를 요구

본사기자 김 철 호